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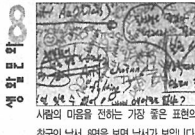


가난한 마음에 생명을 주는 것은 돈이 될 수 없지만, 적절한 임금을 갹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강사 중 22명의 한 달 평균임금이었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40%밖에 못하진 못하네네. 요. 당시의 수입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심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다운 곡선 비어있는 공간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는 도자기를 만나봤습니다.

67명도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구호로 온라인의 신문을 만든 오마이뉴스. 이 뒤를 이어 수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급속히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생물학 실험실.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생물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생물의 숨결이 흐르는 곳엔 생명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통일대토론회를 맞아 재학생이 송두를 교수의 귀곡을 추진중인 교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측은 이미 행사 불허령을 내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토론회는 미리 준비가 끝났다.



민중위 김혜선 의원이 교내에서 왜곡된 사실을 보도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운동 벌이고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박경양씨를 만나

##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의 정상화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전락한다는 목적으로 1963년 6월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의 사립학교는 부패와 전횡적인 재단 전횡으로 교육개혁의 역할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사립학교법이 존재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의 개정논의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민운동본부 등 많은 단체들이 모여 지난 5월(화) 국회 빌라에 마라톤을 시작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박경양씨를 만나 6월 그동안의 투쟁상황과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개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거나 통과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나 모든 국민들의 개정요구가 높은 지금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이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개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의 제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에 교원의 대표가 참여되면, 교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원시화되어있는 감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익감사가 추진되고 공익감사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현재의 재정비리를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란 걸림돌은 사립재단법과 보수적인 정당,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사학비리들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비리에겐 당연히 자율성을 줄 수 없다.

우리가 개정운동을 하는 것은 각 학교들의 자율적 경영과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명분보다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들에 대해서는 나선운동을 펼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학생,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도 학생이고, 개정이 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도 학생들이었다.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절반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이다.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수경 기자 seouwater63@hanmail.net



어름방학 즐겁게 보내세요. 위대인들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찾아지는 양배터터 기말고사 시험 진행 중이다. 용인배터리 등록금 2% 환불.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을 위한 미국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등 위대인의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학기였다. 기말고사 끝나기 직전에 다하고 농담로 지적되는 어름방학을 의미있고 즐겁게 보내는 위대인이 되길 바란다. 사진부

## 서울, 도서관 열람실 자리표 배부

기말고사 기간동안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리표를 배부해야 한다. 도서관 학생위원회(도학위)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14일(목)부터 19일(화)까지 6일간 자리표 배부도 실시한다. 시험기간 동안 열람실 좌석 선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시험기간 새벽 6시부터 선착순 200명에게 10분간 자리표 한 개를 나눠준다. 자리표는 당일 도서관 열람실 좌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지급받은 자리표에는 성명과 학번을 적어야 한다.

지난 2학기 중간고사부터 실시된 자리표 제도도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동안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는 △한 명당 자리표를 여러 개 갖는 것 △열람실 상환점점 미비 등 지적사항을 해결하

기 위해 도학위원들은 △도서관 수위 아저씨들과 연계 강화 △오전 8시, 오후 2시 두 차례 열람실 좌석표 배부 실시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도학위 운영진(서장·부서) 97명은 "자율적 제재로는 자리 선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등록금 낸 만큼 도서관 열람실 사용권이 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권리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자리표 제도는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손준은 "자리표를 받은 학생들이 좌석을 비울 때 꼭 자리표에 비는 시간을 기입해 다른 학생들이 그 시간동안 자리를 사용하지 하"는 말도 덧붙였다.

대학부

## 교통사고 학생 두고 보험처리 논란

지난 4월 28일(목) 오목바이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중인 임영민(정보산업공·정보통신 96) 군을 위해 모교운동이 진행 중이다. 임군은 새벽 3시경 모교에서 산행의 차귀도로 내려 가던 중 정문 안쪽 방치된 부근에서 사고가 났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임군은 대학에 위치한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현재 동부부패에 보상을 들 어놓는 상태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점과 보험회사의 사고가 난 지점과 경위서에 대한 의문점을 표함으로써 보험분배를 둘러싸고 마찰을 겪고 있다. 이수경 기자



## 학보를 떠나는 이유

이날 이날 성은 의미의, 이름은 학보인. 신비가 살아있네. 위대가문의 지대를 땅속에 받고 있던 그 신비의 호는 '원주자주인'이었습네. 위대학보는 뛰어난 글솜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네. 어느 여름날 학보는 일생의 역작인 '인더비트'를 출간시키기 위해 잠시 포기를 떠났기로 했습니다. 위대가문의 사람들은 아쉬웠지만 포와 나무, 그의 모습을 기대하며 보내주기도 있었습네. 여름이 지난 후 돌아올 그를 기다리네~

민족주요문 오대학보

## 빈자

## 불씨와 며느리

▲요새처럼 성인이 흔하지 않은 시절에는 집마다 불씨를 아주 귀하게 간수했다. 불씨를 어떻게 간수하느냐 하면, 아궁이 깊숙이 불씨를 담고 다지고 불이 있는 장작을 넣고 재를 두껍게 덮어서 다독거리 놓는다. 그러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살갓이 된다. 아침에 아궁이 재를 해서 불장작이 불이 발정해 남아 있으면 가기에 질이나 사탕으로 불을 담아서 아궁이 불로 아낌없이 해먹는다.

▲2000년 6월, 나라가 갈라져 50년만에 처음으로 또 갖는 남북의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켰다.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끊어진 민족의 끈을 다시 잇고 냉정과 대결의 찬바람이 불던 이 땅에 화해와 통일, 일종의 문을 열고 새 역사의 시작이었다. 3차례에 걸쳐 총 2천 여명의 이산가족의 만남, 비정형화장기수기 복속, 경의선 철도 복구와 개성공단 개발, 인천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등 경제 협력으로 남북관계 및 민족화해의 전환을 마련했다. 또한 48만 인구는 공동선언 기치 아래 자부민주주의의 기운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MDX(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반대 등 반비핵화들은 우리국민들의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민족주의의 선례가 고조된 점을 잊보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통일의 움직임이 달기위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들이 내외에서 한결같은 지지와 받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해하고 그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문제, 핵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경대응을 운운하고 제내비핵의 전면 재검토, 이북의 지도자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다는 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의 반물질 선택을 또 여전히 대결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북에 대한 주적론, 공조와 안락의 이념들을 들이치고 있다.

▲한 가정의 며느리는 불씨를 꺼지지 않게 지켜가는 것을 그 가문의 기운으로 생각한다. 불씨가 꺼지면 가문이 망하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젊은 며느리들은 자다도 및 번씩 일어나 불씨를 살피느라 밤잠을 설쳐야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불을 일으키는 데 쓰려고 재 속에 묻어 놓는 작은 불씨인 불씨, 그 불씨와 같은 6·15 공동선언을 정성껏 잘 살려 우리의 불, 통일 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아궁이 깊숙이 넣어두기도 하고, 재를 덮어서 다독거리 놓기도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문화부장



기화·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설문분석

# 열악한 강사처우 수업에까지 영향 미친다

시간강사에게 불어본 처우문제  
우리학교에 출강중인 시간강사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해결 문제가 강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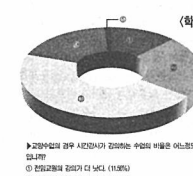
지난 7,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학사회에서 전임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외에 인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설문에서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전임교원도 인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임교원도 인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임교원도 인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본보는 지난 7, 8일(금) 이틀간 시간강사 처우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강사 23명, 양 배움터 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지난 7,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강의평가제, 문항 세분화·결과공개 해야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는 교수 강의의 질 향상과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강의평가제'가 기본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지적과 함께 수강하지 못해 점수가 낮은 학생을 다 차등해야 하고, 강의평가 특성은 강의평가로 평가하는 것, 그 실효성에 의문을 두게 한다. 또 비공개이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경계이다.

한 강의 강의평가는 성적확인을 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94%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군은 "성적을 받기 전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클릭해 버린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며 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수들이 의지를 재충전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에 정진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며, 검토중에 있다”고 말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출판부 도서 안내

- **행정법(上)**  
박규하 지 / B5 / 30,000원  
본 책은 한국행정법 이론의 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외국 행정법학의 단순한 모방이나 외국 행정법학이론의 맹목적 추종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 책은 첫째 초학자에서부터 상당한 수준의 행정법 이해자 내지 고시 준비생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표준적 교과서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둘째 행정법학이 추상적인 이론 탐구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판례의 소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 1편 행정법, 제 2편 행정작용법, 제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 4편 행정재판법으로 이루어졌다.
- **동남아-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어**  
양승환교수 지 / A5신 / 15,000원  
이 책은 동양사의 근원인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각 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가와 인도네시아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제 1장 인도어와 동남아의 종교문화, 제 2장 인도어와 동남아의 언어관계, 제 3장 동남아 문학에 나타난 인도사시, 제 4장 동남아의 리마와 동남아의 언어, 제 5장 앙코르와트와 동남아의 인도문화, 제 6장 인도인의 동남아 이주사, 제 7장 미얀마의 인도인 사회, 제 8

### 정모군 (37)

정현도

▶ 7월 8일(금) 이틀간 양 배움터 시간강사 23명(남 12명, 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처우에 대해 평균 4.34점(10점 만점)을 뒤 절반 점수에 그치지 못했다. 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대해 △임금(12) △교수생활(11) △정신건강(10)이라고 답했다.

### 공고

“농촌봉사활동의 사회봉사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에 의거, 2001학년도 하계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일정을 공고함.

아래

- 일시: 수강신청: 2001.6.11(월)~6.15(금)
- 장소: 해당대학 교학관
- 방법: 교학관에 비치된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서' 작성, 제출
- 참고사항:
  1. 학제: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학생 자신이 원장 체계를 통하여 사회현상의 재발견을 직접 인식하게 하며,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원 화를 정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규 교과과정 중 '사회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임.
  2. 학점:
    - ① 이수학점은 2학점으로 함.
    - ② 농촌봉사활동의 사회봉사 학점 인정은 정규학기 최대 이수학점까지 별도로 인정함.
    - ③ 관련 농촌봉사활동 이외에 이미 '사회봉사' 교과목에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농촌봉사활동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④ 졸업성적 및 학점은행제 등 농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⑤ 농촌봉사활동에 의한 사회봉사학점 취득은 대학 중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내로 인정함.
  3. 평가:
    -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성적은 'P'(pass)로 통함.
    - ② 농촌봉사활동의 '사회봉사' 학점 인정은 학제 농촌봉사활동 결과인 인정함.
    - ③ 농촌봉사활동의 결과로 '사회봉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농촌봉사활동 '0학점'이 인정되어야 함.
    - ④ 사전 신청 미비자 및 농촌봉사활동 후 1주 이내 '농촌봉사활동일지' 미제출자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2001. 6

교무처장

글을 발송합니다

지역: 의대원(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제한 없음 / 매수: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epress@hanmail.net) /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예정어린 논으로 비변해 주십시오. maincc.hufs.ac.kr/~weekly

협산은 HUFS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년의 존망입니다

## 외대학보

### 토론식 수업 확산됐으면

788호 외대학보의 '생활 문화'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시다. 이번엔 대학에서 토론식 공부하는 곳 해보았습시다. 고등학교때는 대학에서 토론식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생활 문화'란 상에서의 대화와 토론이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고 이런 공부방법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윤석(서양·서번이아 1)

### 지면안내 있었으면

지면안내 없이 매주 지면이 바뀌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 면에 지면안내가 있긴 하지만 특히 8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현우(서양·독일어 00)

### 비판적 시각 긍정적

가사들의 비판적인 시각들이 맘에 든다. 그런 기사들을 읽게되면 보다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정지성(사회·정치행정계열 1)

### 학생들과 가까워지길

외대학보는 외대생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좀 더 외대생과 가까워진 외대학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지혜(서양·독일어 1)

### 대자보활용 활발히

도서관 학생회관 등 여러 곳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 수 있는 대자보를 활발히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윤형(경제학과 93)

### 다양한 기사 실렸으면

취업에 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고학년들이 관심있게 읽을만한 기사도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

설문조사 중 한 학생(92)

##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와서

지난 6월 1일 한총련 출범식이 시작되었다. 백만 대학생들의 축재답게 볼거리도 많았고 느낄 수 있는 점도 많은 것 같았다. 처음 가는 출범식에서 그런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감이 부족했다. 첫날은 시민 학생 연대 한마당을 통해 개황을 알렸다. 여러 새내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문선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의 호뜻한 미소가 학생들의 마음에 화합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연대 발전에서 시민단체 한남에게 이세 학생들이 말하는 것에는 정당성을 결과해서 흥미로 느낄 수 있었고 그 길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하였다. 고맙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또한 김태 피서는 어머님의 구상진 기약의 노래도 흥을 돋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거의 마지막 순서로 의정님의 발언이 있었는데 새내기들에게 신문을 주신다는 발언을 했다. "무슨 말인가"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의정님의 신문을 출판사에서 새기들이 가질 수 있는 삼의 나침반이었다. 세상을 여는 창이므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과 행동은 확연히 틀리게 나타난다. 특히 만약에 내가 들린 것대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생활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에서 자신의 목표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같이 온 새내기들이 많이 느끼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날 저녁에는 많은 단체의 연대 발언이 있었고, 즐거운 문선들이 공연되었다.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파도타기와 불빛 넘실대는 라이다 쇼는 매우 환호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내가 동참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럽고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 등의 여러 민중가요 노래의 노래에 2번이 넘어 명을 추는 진 기만 장편이 연출되었고 축제의 분위기는 자못이었다. 다음 날은 오전과 오후는 여러 강연과 공연이 진행되었다. 우리 학생들과는 계열제 문제와 안하에 학부제 철폐에 대한 강연회였다. 준비를 많이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각 학교의 상황이 우리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이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고 매우 고 뜻깊음을 느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한총련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할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이 매우 기분이 좋았다. 출범식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 행사인 것 같다. 그리고 사회운동 면에서 더 밝은 방향을 보여준 것 같이 매우 기분이 좋았다. 지금 한살은 기간적인 미국에 미시적인 방어체제에 의해 남북간의 6.15 공동선언에 의해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진정하고 불안으로 바꾸어 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거의 미국의 어중원권 식으로 외국 자본의 침투가 용이한한 싹피며 무르익는 통일외교에 찬물을 적시며 민중의 생존권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 민중의 단결로써 해결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통일과 민중 해방의 길에 한총련이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기진다.

이근호(사회·행정 00)

## 신용카드 이대로 좋은가?

지난 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불량자가 수가 급증 3월 현재 230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 최근 금융계의 한 보고에 의하면 신용불량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수가 전체 개인 신용불량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이미 5,200만장을 돌파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민 1인당 1개꼴이다. 신용카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매우 편리한 결제수단이다. 그러나 정확한 신용평가도 없이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카드회사, 갚을 능력도 없이 마구 카드를 긁어대는 소비자, 탈세를 위해 매 출점점포 속이는 가맹점들이 존재하는 한 신용카드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참고로 미국사회에서는 신용거래 실적이 없으면 카드가 발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기관은

모든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화한 신용정보 점수를 각종 금융거래의 기본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을 종합해 숫자로 표시한 신용정보 점수는 금융거래 실적 뿐 아니라 세금이나 공과금, 각종 법적금 채납, 채무관리, 파산선고 등 종합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종합보고서인 셈이다. 신용정보 점수가 높으면 좋은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학교 성적처럼 신용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된다. 신용정보 점수가 좋은 사람은 우대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신용카드는 단순히 지불수단의 개념을 넘어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회사와 고객 확보에만 열안이 되어 노상에서 경쟁을 내걸고 무차별적으로 길거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결제처리가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발급을 하는가 하면 카드사용한도를 제멋대로 설정하

게 유폴함으로써 소비를 조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카드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카드대출로 인한 개인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한편, 카드회사는 신용매출거래증거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고열의 이자행위를 고리대금 사채업자와 같은 형국이 되고 있었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 신용, 카드거래와 관련된 비밀번호야말로 본인과 은행의 개인 컴퓨터만 알 수 있는 사생활보호의 중요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번호 몇 대장 같은 곳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공공연한 큰 소리로 알려주고 받들도록 해도 본인 스스로도 연결되는 뜻지 못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신용결제사 회로 금융회사 진입하고 있는 한국 경제사태는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발과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카드 발급대상을 엄격히 관리하고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행 카드 남발을 억제하며 소득별로 카드사용한도를 세분화하는 등 신용발과 방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입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원진(법학)교수

## 세상에... 전통의 다른 이름은 한통이었다

영원히 무료화 되어야

-교학생-

반발하고 싶는데 효용이 거의 없다

을 듯

-재남자-



주제: 전통부가 대신 저표시 무료화제 제정 을 결정하는데...

무정기에 발신자표시 자체가 없 어 다정적이

-국방부-

제로로 되는 꼴을 못봐요

-솔트스나-

## 명수랑

###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치자



강준영

(중국학과 교수/ 한대총련 정치경제학)

은 나라가 가뭄과 전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 기성관료계 처음 보는 대대적인 가뭄이라고 한다. 실제로 경기 이북지역에서는 비 오는 날 본 자가 언 제인지 모르니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됐다. 이 상태가 한 10일 만 더 지속되면 올 한해 농사는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가 아닐까 싶다.

가뭄은 분명히 천재(天災)이다. 수 천년을 이어온 농경문화의 전통 속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순응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 가뭄은 이미 연례행사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년 고 했다. 최근의 가뭄을 겪어보고 건조주의보에 산발 경보도 수 없이 경험해 보았다. 불과 5-6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가뭄을 겪 으면서 온 나라가 고생했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도 정 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호들갑을 떨면서 가뭄지역을 방문하고, 일반사람들은 농민들의 애를 마음은 걱정하면서 성공을 모르는 행동에 신시민들의 정성을 모았었다. 99년 뉴스에 한 보도는 강 열의 농토는 바다에 거머어처럼 걸려져 있는데 하루 수만 톤의 물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현 장을 고발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일목백출하고 있다. 담당자는 예산 집행이 제 때 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일관적인 해가인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처럼 열심히 세운 내는 나라도 없을 텐데 말이다.

매년 같은 패턴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다. 분명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생겼지만 다음 번에는 결함없이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모두 그때 그때마다 현실적 미흡해도 대강 대강 지나가기 때문이 다.

또 다른 자연재해인 수해(水害)도 매년 각종 대책과 조치들을 발표하고 이 를 충실히 집행한다면 다음에 유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우리는 바로 망각자가 된다. 이러한 망각의 결과는 결국 인재(人災)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관리 IMF의 경제선타특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실직의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다.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정부 발표를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조금만 회복되면 우리는 또한 망각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팔만인의 가슴이기를 바란다.

우리민족은 분명히 독특한 민족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과 재해를 잘 모은다. 그리고 잘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일부 어정쩡한 뒷마무리가 우리민족의 막대한 낙관론과 아울러 참작인 도야에 장 애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고집도 기고도 그렇고 수년 제 정책성 위기에 직면 하고는 우리학교도 그렇다.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 놓자. 축사 그 외양간도 고치지 않으려는 건 아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까지 -  
국민은행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 국민은행 대액(원)생물문헌상공모

한국 최고의 은행을 넘어 World Class Bank로 지향하는 국민은행에서는 주택연금의 활성을 이루고 통합은행의 새로운 경쟁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신한 논문공모합니다

- 공모지역: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참가형태: 개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한 팀
- 공모주제: 주택연금 확대하기 위한 통합은행의 신장 전략
- 논문분야: 사회 복지 30점 이상, 200자 원고지 120장 이상
- 참가신청 (Fax 또는 e-Mail 접수)
  - 참가신청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제출처: 국민은행 정책연구실 / Fax 02-317-2100 / e-Mail ebrc@koobinbank.com
  - 신청기간: 2001년 6월 11일 ~ 6월 30일
- 논문심사(무면접)
  - 제출서류: 논문 3부본, 송리물 및 디스켓, 재학증명서 1부, 참가비 전영
  - 제출기간: 2001년 8월 25일 ~ 8월 31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우 100-703)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2가 81 국민은행 정책연구실 연구지원 센터 02-317-2162

■ 당선된 발표 및 시상
 

- 1등: 2001년 9월 21일(금) 국민은행 홈페이지 발표
- 시상식: 2001년 9월 28일(금) 국민은행 본점 행사

■ 시상내용
 

- 최우수상 1명: 장학금 1,000,000원 + 상패
- 우수상 2명 이내: 장학금 500,000원 + 상패 (당첨)
- 장려상 3명 이내: 장학금 300,000원 + 상패 (당첨)

(상기 장학금 지급은 2001년 10월 31일까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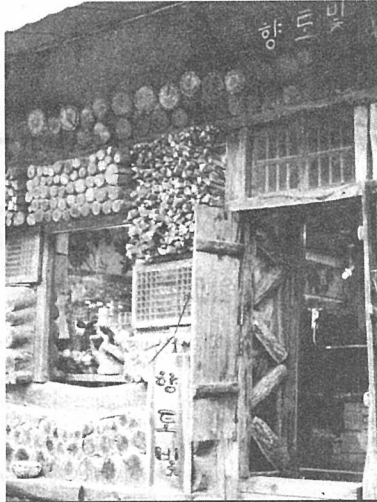
■ 심사: 발표도 주권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기타: 공모된 장래 발전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자치권을 당면해 주시길

www.koobinban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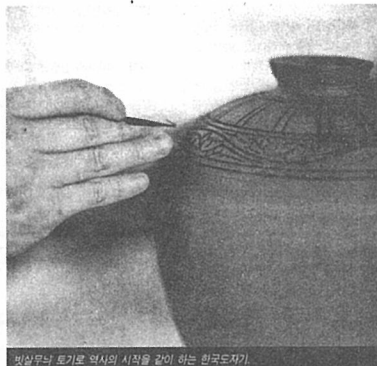
수많은 병들을 도예가의 손에서 잠시기도 도자기이지만 도예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들이 사기조각으로 변한다. 도예가의 정교한 작품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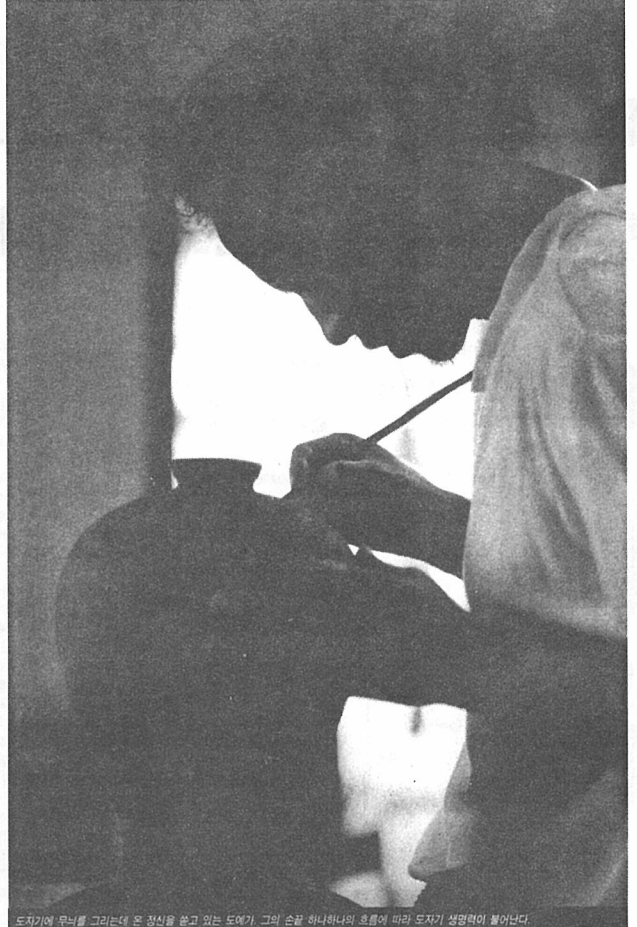
시가민국 도자기를 파는 가게 나무장판을 깔아는 모양이 고향을 뽐낸 민상시긴다. 현대식 건물에 도자기를 파는 것보다 가게마다의 특유한 분위기를 만들어 도자기를 팔 것을 더 살필 수 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 신발도 도자기라도 미지의 굽는 부분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재는 나무로 불을 때는데 보다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가스 가마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백상무늬, 토기문 역사의 시원을 같이 하는 한국도자기. 그 아름다운 무늬의 발전이 도자기의 발전과 같이 한다.



도자기에 무늬를 그리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도예가. 그의 손끝 하나하나의 호흡에 따라 도자기 생명력이 불어난다.

도예마을 '사가막골'을 찾아

# 흙과 함께 한 세월의 여유, 그리고 순수



## # 하나. 도예마을 사기막골

경기도 이천. 풍부한 도자기 재료와 천년의 전통을 이으려는 도공들의 피나는 노력이 덧붙여져 한국의 전통도자기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다. 많은 도예가들이 모여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토속적인 작업장들이 용기종기 모여있을 거라 상상하고 사기막골에 들어섰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하게 놓여진 도자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었다. 또한 '2001년도 세계 도자기 박람회'를 8월에 준비하고 있기에 이제야 갖 만들어진 도자기를 형상화시킨 분수대가 물이 뿜어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조형과 미술에 대해 알고 싶다면 도자기를 접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마을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 #두. 장인정신으로 흙을 만지는 도예가

"안에 들어왔다 가요" 도예가들이 있는 곳을 물어보는 나에게 험크러진 긴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린 30대 후반의 남자가 얘기한다. 그는 도자기를 빚다가 잠시 쉬러 나온 도예가임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때 신었던 실내화에 여기저기 물은 황토빛 흙으로 걸작할 수 있었다. 허름한 건물에 들어서니 예상대로 소박한 도자기 작업장이었다. '길음요'라는 호를 가진 도예가로부터 직접 빚은 도자기 그릇에 향긋한 차 한잔을 얻어 마실 수 있었다.

나: 이곳 이천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길음요: 회사에 다니다가 무작정 이곳으로 온지 13년이 흘렀네요. 그 당시에는 직접 흙을 파고 그 흙을 직접 체에 거르며 많은 것을 손으로 꼼꼼하게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가다 중에 그런 노가다가 없었어요. 배는 얼마나 고프던지.. 하지만 요즘 도예가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곳에 와서 차근차근 고생하면서 배울 생각은 안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학교에서 배운 현대화된 장비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바로 공방을 차려려고들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도자기의 모습보다는 현대식의 변형된 도자기가 많아요.

나: 몇 년 전에 일본 도예가가 이천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길음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도예가들이 돈을 받고 판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 조선시대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도공들을 강제로 일본에 데려가 한국도자기 기술을 배워갔어요. 하지만 현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도자기 산업에 있어서 앞서고 있어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돼 전통문화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난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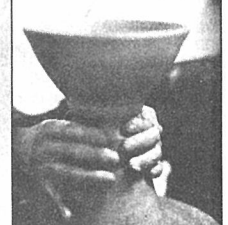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 그는 도자기 빚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흙덩어리 하나가 어떻게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의 손놀림에서 흙과 함께 한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 #세. 정성과 고마움

길음요 도예가의 도자기들을 모아놓은 방을 찾았다. 온오히는 빛깔, 아름다운 곡선, 투박하고 소박한 세질, 정감어린 문양.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몇번이고 손을 갖다대야 하는 정성. 렌즈를 통해 도자기들을 보며 소리없는 감탄의 목소리를 연이어 자아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직접 빚은 도자기와 목걸이를 손에 쥐어주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예마을은 변해가고 있었지만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의 맘씨와 숨씨는 여전히하다는 것을 느꼈다.

## #네. 아름다운 곡선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여러 학원을 등록하는 등 이것저것에 쫓기는가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삭막해져 가는 우리.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아름다운 곡선과 비어있는 공간으로 그런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순수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사진·글 사진부

# 좌담회 - '외대내의 인터넷 언론매체와 발전방향'

그 현재와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비판과 견제기능  
 청구자가 원해”**

오봉용(engTV국장)

**“개인이 매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배기정(ajnet국장)

**“연대의 가능성  
 늘어날터”**

임재훈(정의과 편집위원장)

**·토론자**  
 오봉용(공대인터넷 방송국 engTV 국장)  
 임재훈(정의과 편집위원장)  
 배기정(신문방송학과 ajnet 국장)

**·사회자**  
 박수용(외대학부 편집장)

**사회:** 우선 개인이 속해있는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오: 인터넷 티브이(engTV)뉴스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 학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장 빨리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인터넷 방송의 오락성을 추가할 것이다. 뉴스와 오락화도 있지 않습니까

배: 인터넷은 지난 99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대안매체로서 인터넷 방송이 지목되고, 그즈음 과에서는 자치공간과 가짜계 도입을 학교에 요구했던 것이 많이 벌어졌다. 다양한 매체들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기존 방송국에서는 다룰 수 없는 민중가수 백지의 노래 등을 방송했으나, 현재는 쉬고 있다.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간 만들어왔지만 전문적 기술이 없으면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교육에 집중하면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임: 정의와 신문 '끈을 잇는 터'는 1년에 내면 250부에서 300부 정도 찍어낸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매년 처음 고안이지만 '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체성 문제는 매년이다.

**사회:** 여기 모신 분들은 모두 언론매체를 만들고 있기에 '대중성'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매체의 '공용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 개국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우리방송을 찾을까 우려됩니다. 방송국을 일러내갈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배: 의욕이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게시판에 글이 하루에 300에서 500회로, 사이트소 개 등을 함께 운영해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심심찮게 한다. 개인이 언론을 소유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의견도 커야만 한다.

**사회:** 대중성을 얘기하면서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말할 듯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체이용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임: 가끔 과실문의 정치성이 희박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항상 독자들의 비판은 매섭다. 과실문이 학생회의 하부구조에 속해있는 만큼 집행부들이 잘못을 평가하거나 사안에 대해 비판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라 생각한다. 과실에서 좋은 관계만 유지시켜 나가려면, 결국에 무너질 모래담을 쌓는 것일 뿐이다.

오: 학교, 학생회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기능을 해 주길 학생들은 바라고 있다. 그것이 독자가 원하는 것이다.

배: 담론의 생산이나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노래패의 상의에 공감이 줌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음악들을 우리들이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불러주고, 들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대중성이란 것은 결국 '대중들의 참여'가 아닐까 하는데요

배: 겨울반려 동안 일주일간 워크숍을 진행했고 있다. 참여를 원하게 한것은 인터넷 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 후에 지속적인 참여까지의 임지 않을 것 같다.

**사회:** 참여는 독자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거 독자로 바뀌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이다. 경험은 없는가

오: 작년 미팅을 동영상으로 중계하려 했었다. 하지만, 홍보가 안됐는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임: 우리신문인 '정의와 터'에는 정확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식이다.

**사회:** 외대내의 쌍방향 인터넷 신문이 들어선다면

배: 선풍 언론 나가지 말 것. 더 다양한 의견과 기사사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동종 인쇄매체간의 교류도 더욱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오: 텔레비트가 꾸준히 되어 독자들이 계속 볼 것 같다.

임: 오미야뉴스처럼 자사의 분야, 연내의 가능성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

**사회:** 미흡한 토론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에 대해 한 마디씩 하자

오: '참여'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논의하기에 이른 것 같다. '참여'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내년 다룰 것이지 올해는 논의가 담보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의 인력과 재정도 많이 갖고 배워

임: 매체는 달랐지만 분명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다. 미흡하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

정리 / 외대학보 인터넷 신문 특별팀



**사회:** 두 분께서 비판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나 이런 것에 걸맞은 생산물들에 대한 경험을 듣고 싶다.

오: 아직까지 그것이 걸맞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생각만 해 왔다.

임: 학생들은 학생회 행사 참여가 부족하고 지금의 대안신문이 개인이 거대한 담론들에 대해 이미 기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곳에서 표출할 수 있는가?

**뉴스의 생산과 소비를 한 곳에서**

서울대 S&U Now (www.snunow.com)

S&U Now는 Society & University Now. '오늘의 사회와 대학'이라는 뜻. 그러나 S&U가 '오늘'로 발음되는. Social National University의 약자라는 사실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울대가 분명 '내화서열구도의 정점'으로 왜곡의 출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에게 'SNU'는 그들의 정체성의 시작인 것이다.

게릴라 기자제로 운영되는 뉴스와 편집 형태를 하고 있는 아비를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는 S&U Now에 있는 신속하고, 감칠맛 또는 글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유뉴스 UNEWS(www.unews.co.kr)**

전국대학의 소식들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 전국 140여개 대학의 신문기자들의 모임인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신문), 해외통신원, 유뉴스취재팀 등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기사와 함께 전국각지에 퍼져있는 '게릴라' 기자들의 글들에서 당신의 뉴스를 발견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건 칼럼인 '빛그늘'과 일상을 전한 '눈여겨'는 '생활속 작은 이야기', '희재의 인물' 등 기사가 아니어도 볼거리는 무궁무진하다. 현재 대학신문들을 기본 자료로 하는 정보창고 유뉴스는 준비 중에 있다.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2001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함.

- 아 래 -

1. 시험기간: 2001. 6. 15(금) - 6. 21(목) ...5일간
2.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시함. 나.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물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3. 추가 시험 가. 대상자: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유고적합한 경우에만 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2001. 6. 21(목) - 6. 22(금)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2001. 6. 25(월) 라. 추가시험 성적처리: B+이하 (학칙 36조)

2001. 6.

교 무 처 장

2001학년도 제2학기 모현학사생 모집

1. 원서교부 및 접수: 2001. 5. 28(월)~6. 22(금), 모현학사 운영과
2. 구비서류: ▲입사원서 1부(인타면 다용모로), ▲주민등록등본 1부, ▲성적증명서 1부(1학년은 제외), ▲증명사진 3매, ▲학장추천서(4학년학생) 1부
3. 선발기준: ▲학업성적, ▲종합격리, ▲가계곤란자, ▲신체부자유자, (가계곤란자 및 신체부자유자는 증명서류 제출)
4. 입사확정: 서류심사후 입사확정자에 한하여 입사기간 및 입사여부 필요 한 서류를 2001년 8월초에 우편 개별통보하고, 면학분위 기 조성을 위하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입사하는 것은 강제 배양.

**하계방학중 모현학사(기숙사)생 모집**

1. 개방기간: 2001. 7. 2(월) ~ 8. 11(토)
2. 신청기간: 2001. 5. 14(월) ~ 6. 22(금)
3. 모집인원: 200명 선착순(남-100명, 여-100명)
4. 신청서류: 입사원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증명사진 3매
5. 입사지역: 외대대학생(서울캠퍼스 재학생도 가능함)
6. 입사경비: 관리비-120,000원, 보편비-30,000원(회사사 환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과로 문의 바람.  
 (031) 330-4102-3

2001. 6.

모 현 학 사 장

**Das Kapital**  
 자본론  
 인간을 다시보자

강사: 송대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기간: 7월 2일 ~ 8월 24일 (월수금 저녁 7-10시)  
 접수처: 외대 구내서점  
 강의실: 사회과학관 303호  
 수강료: 6 만원

강사의 연락처:  
 das-kapital@hanmail.net  
 011-9678-4324

애국원대 총학생회  
 edited by Hwang H

**언론사 취업 특강**

■ 대상: 언론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대생이면 누구나 가능

■ 일시: 6월 14일 늦은 5시 ~ 7시

■ 장소: 사회과학관 3306호실

■ 강사: 내외 경제 신문 김덕만 부장

■ 내용: 하반기 언론사 취업전략

■ 주최: 선방과 학과정실



### 대학신문과 인터넷

#### 인터넷 신문관련 인식조사

##### 1. 인터넷 매체 이용정도는?

- ① 하루에도 한번 이상은 이용하며, 글(게시판, 기사쓰기)도 남긴다. (41.8%)
- ②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용한다. (32.4%)
- ③ 매일 들어가지만 읽지는 않고 가끔씩 이용하는 편이다. (21.08%)
- ④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4.3%)
- ⑤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다. (0.5%)

##### 2. 인터넷 신문이 생긴다면 기존의 종이신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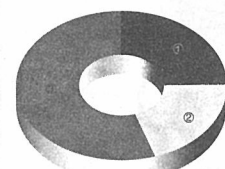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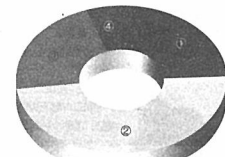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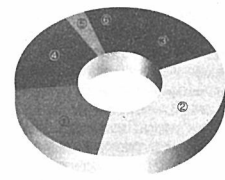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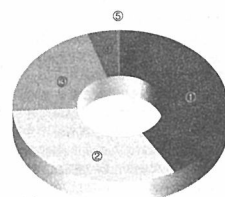
- ① 사람들이 신속히 보도할 수 있다. (18.4%)
- ② 손쉽고 접하기 쉽다. (33%)
- ③ 친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20%)
- ④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7.8%)
- ⑤ 기타 (3.2%)
- ⑥ 잘 모르겠다. (5.4%)

##### 3. 오프라인 신문과 상호보완성

- ①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다. (2%)
- ② 인터넷 신문은 종이신문의 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 (49%)
- ③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의 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 (22%)
- ④ 종이신문은 폐간되어 한다. (5%)

##### 4. 인터넷 신문이 발달될 경우 기사에 대한 편집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대학보사 (25%)
- ② 기사를 쓴 개인 (20%)
- ③ 외대학보사의 기사를 쓴 개인 (55.1%)
- ④ 학교장 (0%)



#### 실문분석

## 인터넷 신문,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 기대 돼

지난 7일부터 8일(금)까지 일주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74%의 외대생은 하루에 한번 이상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다는 대답은 4.8%에 불과했다. 이는 인터넷 이용이 학생들 사이에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뉴스매체의 종류는 정기적인 업데이트 형식을 취하는 웹진으로 28.8%의 학생이 이를 즐겨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20%의 학생이 일간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했다. 현재 각광받기 시작한 오마이뉴스와 같은 형식의 쌍방향 언론매체를 이용한다고 밝힌 학생은 14.1%로 아직 널리 활용되어있지는 않다고 나타났다. 웹진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 전자일보는 다음 매거진 등을 이용한다고 밝힌 사람이 많았는데 △신문사 △내용이 상세하다 △재미 있다 등을 꼽으며 △구성이 시원하다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일간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주로 한겨레나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종합일간지나 스포츠 투데이, 스포츠조선 등의 스포츠신문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읽기 편하게 되어 있다 △타라가 좋구나 △재미있다 등을 꼽았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뉴스매체의 높은 이용률이 기존 오프라인 매체로서의 확보에 대한 요구한다고 판단, 서울과 용인 매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외대학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13%가 '확보방행'이다. 본보가 답하고 싶었다. 51%가 '가끔씩 본다고 답해 69%가 학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의 학생이 '읽지 않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좋았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양 매체 소식을 알 수 있다 △내용이 진보적이다 △재미있다 등이 있고 심도가 깊다 등을 꼽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특성성이 없다 △유용한 정보가 없다, △일부 학생들과 거리감이 있다 등이 있었다. 배포방식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정기적인 곳에 배포함을 단점으로

△배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홍보도 부족하다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학교 내에 인터넷 신문이 생겼을 때 기존의 신문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를 물었다. 35%의 학생이 '쉽고 접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시선을 신속히 보도할 수 있을 것'(18.6%),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17.8%)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즉,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편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었다.

인터넷 신문을 만들 때 구성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과반수가 학부나 대학원 내의 과, 단과 소식을 꼽았다(52%). 다음으로 각종 생일정보(30%)나 어학관련 자료(17%)를 실용적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해외소식(12%) △동문소식(10%) △칼럼(9%) 등이 있었다.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진 후 기존 신문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기존 신문의 발행주기에 대해서 '기존의 발행체(주 1회)를 유지해야 한다(60%)'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는 '인터넷 신문은 종이신문의 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49%)'는 의견이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의 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22%)'는 의견보다 아직은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2%).

기존 대학신문의 경우, 편집권이 대부분 학교 당국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기자들과 학교측 사이에 빈번한 마찰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체제가 출범하면 이러한 마찰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업데이트되는 기사에 대한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22%의 학생들이 '학보사'라고 답했고, 20%가 '뉴스를 쓴 개인', 나머지 55.1%가 '학보사의 개인 모투'라고 답을 했지만 '학교당국'에게 편집권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유지훈 기자 kuckbutt@origo.net

#### 대학 신문의 나아갈 방향

## 과연 대학신문은 위기인가?

대학신문의 위기론이 심상치 않다. 대학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가득불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대학신문을 지원하는 기자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들어온 기자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대학신문 생활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분히 발생했다. 분명 의형상으로는 대학신문은 위기다. 그러나 이는 종속적인 학교공보로서의 대학신문이 위기일 뿐이다. 대부분 50년대에 만들어진 대학신문은 60~70년대의 대학 홍보자를 거쳐,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키워왔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의 매체가 있었다. 때문에 대학신문은 분출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와 사회비판의식에 목말라 있던 대학인들에게 독특한 정보 제공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 시대를 이르는 다매체시대라 부른다. 실례로 대학원 하러다니 다양한 형태의 매체가 흥수를 이루고 있고 그 곳에는 각각의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남으로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주간지는 이미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대학신문(88년)', 캠퍼스 라이프(92년), 현재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으로 미래의 일꾼(00년, 월간) 등 타블로이드와 책자 편성이 본격 개시하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대학의 대학신문 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전문적이다. 이외에 신문방송학과나 문화 공생체를 지향하는 대학신문의 웹진 또한 이외에도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들이 만드는 DEW(http://www.dew.ac.kr, 99.6), 성공관대 학생들이 문화평론을 내세우며 만든 고향(http://members.tripod.com/ghom/ 97.12), 서울대 미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메인(Main)(http://www.mainzoo.com, 00.10), 등 이미 30여개의 웹진과 전문성과 기획성을 무기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하고 있다. 이런 야다는 이제 는 대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념대 '모난돌'(www.monandol.net, 00.10), 서울대 S&I(http://www.snuw.com, 00.), 건국대 '바이전국'(www.mykoreak.com, 00.11) 등의 인터넷 신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각자나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형성하고 있다. '취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또 인터넷 사이트의 커뮤니티에 기반한 한 대학의 '관객' 카페가 적게는 10여 개에서 많게는 30~40여 개씩 있다. 이렇듯 대학에서의 언론은 분명 활성화되고 있다.

#### 노력이나 시스템의 변화이다

볼과 싶어 전만 하더라도 은행을 가면 창구 앞에서 줄을 서있는 풍경은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이루어져있는 새치기도 하고 그 반면 뒷줄의 사람들이 기다렸고 리 만우하니 심할까 봐 걱정하던 이런 곳이 은행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동번호 출력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신문도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 또한 주체의 노력이나 이전의 편집책임이라는 곳에서 찾아야 할 만한 것이다. 비상사의 전환,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한 대학신문이 대학인에게 사랑 받는 매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대학신문과 인터넷의 현실적 결합" 답은 그곳에 있다

사실 인터넷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이다. 가상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홈페이지, 웹진, 온라인 신문, 게시판 등은 이미 각각이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종이신문 매체에 너무 집착해 왔다. 학내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여론을 무시한 채 관례적인 신문 발간에 초점을 돌음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학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아직도 대학신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웹진의 기획성, 커뮤니티의 다양성, 인터넷의 속보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대표언론은 여전히 대학신문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언론은 자율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생방송 미디어인 온라인은 그들에게 충분한 근거와 언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들의 역할을 통한 여론 형성에 책임이 있다. 즉 온라인 언론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여론을 담아내는 그것이며, 여론의 대중적 힘이 되어 사회로 향해 버치고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둔 인터넷 언론론의 진출, 인터넷에서 걸러진 내용의 대학신문 지원화가 이루어 질 때 대학신문이 위기를 넘어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박종진(News 편집장 · www.unews.co.kr)

만나보기 - 인터넷 게릴라 기자로 활동하는 이윤형(경제학 93 쫓쫓)

## "빠른 독자들의 반응은 나에게 많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게릴라 기자로서 그동안의 활동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마이뉴스" 게릴라 기자의 활동은 지난 6월 현재 외대학보에서 "가장 인터넷 신문다운 인터넷 신문"이란 기사를 읽고 알게 된 후 지금까지 22건의 기사를 썼다. 덕분에 사회 구석 구석을 돌아보며 새로운 생각을 정리해보는 계기도 되었고, 객관성을 유지해 기사를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빠른 독자들의 반응은 나에게 많은 시간 생각을 빠지게 했다. 찬양/응원이 펼쳐지는 경우도 꾸짖는 독자들도 있었고, 직접 연락을 하여 의견을 피력하기도

혹은 부끄럽게도 과반반 칭찬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  
게릴라 기자로서 가장 큰 매력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터넷 신문의 장점은 속보성과 현장성. 독자들과의 반응을 빨리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행성 언론의 한계를 딛고 생방송 미디어로의 손길과 함께 일반시민들을 참여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기존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민감한 기사나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으며, 내 기사를 일반적으로는 난도질하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은으로는 비윤리적 감도로 편집자와 기자를 써서 올린 기사들만 있으면 된다.

반면 단점은 기존의 언론인들이 달랐던 하지만 편집자들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매우 힘들다. 또한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게릴라 기자들의 감정에 치우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홍보부족으로 인해 독자층에 한계가 생기고 게릴라 기자들이 인터넷 사회 또는 문화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경제 등 전문적인 분야인 기사들이 적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외대학보에서 인터넷신문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얼마나 크게 피급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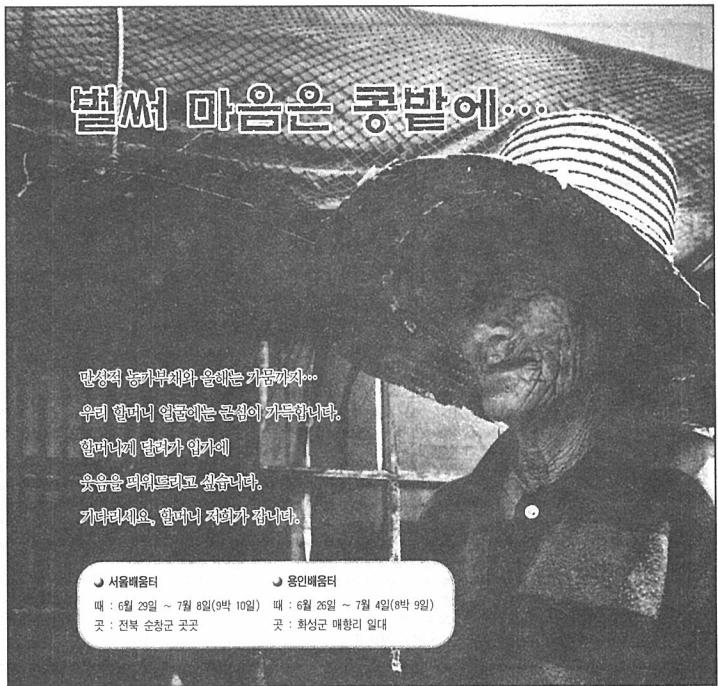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속보성이다. 단순히 활자 매체를 모니터상에 올려놓는 작업의 결과물에 불과해서는 안된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입장으로 당장에 일어나는 일을 빠르고 신속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의 특성상 게릴라 기자들이 필요한 만큼 편집권이나 게릴라 기자들의 의견청취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한다.

편집권은 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동떨어지지 않은 '학생들의 신문'이 되어야 한다.

가장 인터넷다운 것은 인명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현재 오프라인상의 확보는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익명성을 유지해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하며, 자원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의 피급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과급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열의를 추구하지 않는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열성 유지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수경 기자 seouwater63@hanmail.net



# 별써 마음은 콩밭에...

만성적 능가부족과 올리는 기쁨까지...

우려 할때니 일침은 문명이 기득권이다.

할머니네 달려가 일가의

웃음은 피워내려고 씩씩합니다.

카타레시요, 할머니 저와가 잠니다.

- 서울배터리  
매 : 6월 29일 ~ 7월 8일(9박 10일)  
곳 : 전북 순창군 곳
- 용인배터리  
매 : 6월 29일 ~ 7월 4일(9박 9일)  
곳 : 화성군 마애의 일대



만나보기 - 박정희 기념관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용태(미술가)씨

# “그는 내 꿈을 꽃 피울 수 있는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사람”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지난 2월 13일부터 고건 시정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 마포구 삼양동 박정희기념관 건립부지 제공을 막기 위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시정 앞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12시부터 1시까지 하루도 이질없이 이어 온 1인 시위는 지난 달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기영, 김지하 씨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문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지난 97년 노동법과 안기법 부처기 통과 항의시위 이후 처음으로 문단 안팎에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 지난 주 더욱 다양한 민족예술인이 동참해 박정희 기념관 반대의 뜻을 함께 했다. 4월(월) 미술가 임옥상, 5월(화) 연극연출가 박인배, 7월(목) 영화감독 장지영, 8월(금) 미술가 김용태 씨가 차례로 참여했다. 이에 본보에서는 박정희 기념관 반대 1인 시위 ‘일흔 다섯번째’의 주인공 미술가 김용태씨를 만나보았다.

편집자

연일 내리리는 땀방울이 아래, 곳곳이 흠려 서 있는 사람. 똑같은 억압한 일본군 장교 박정희 기념관에 서울 시민 땅 한치도 내놓을 수 없다는 그의 어깨에 걸린 피켓 때문일까, 그의 머리속에 지리잡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진상 때문일까,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슬픔이 어려 있는 듯 하며, 또한 비참함마저 엿보인다.

이번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박정희 시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가 저지른 수많은 과오들은 용서할 수 없다. 특히 그는 인권을



망가뜨린 사람이다. 민족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그를 반대하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 설립을 막으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다.

### 박정희를 풍자하던

그간 ‘경제살리기만은 잘했다’는 경제논리로서 그에게 근대화의 지대한 공을 돌렸었다. 그러나 최근 티진 IMF 구제금융사태를 보라, 이것은 박정희가 부민 잘못된 경제 정책의 책임이 불려들인 비극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해선 아무 것도 추구하고 싶지 않다.

또한 공중조각 등의 인권을 짓밟은 사례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

###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달라

나는 그 당시 대학생이었다. 단적으로 꿈은 시절 머리 커라 하나 마음대로 가볼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은 물론 허용되지 않았고 말조차, 승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마당극이 이루어지고 김민기의 노래운동이 조용히 퍼져나갔었다. 그러나 미술 전시회는 열리지 못했고, 연극이나 노래 등이 금지되었다.

### 미술가로서의 활동이 어떻게 제한되었나

미술가의 생명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 자신의 생각이 제약받았다면 그것은 손과 발이 다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박정희는 내 꿈을 꽃 피울 수 있는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사람이다.

### 박정희 기념관 반대가 있는 의미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이래라도 바르게 알려야 한다.

###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유승은에게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이래라도 바르게 알려야 한다.

유승은 기자 happyend21@hotmail.net

### 미술가 김용태씨는

1963년 태생으로 서라벌 회화과를 졸업해 정준호·박기완 선배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 활동, ‘가-이-트’ 편집장, 성원경·오윤·원동식 선생 등과 함께 ‘현실과 발언’ 활동, 민족미술협회의 창립 동인, 민예총 창립 발기인 등 민족예술 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민예총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도 - 서울배우대 고전기타반 취현 세번째 졸업생 연주회

## 같은 음을 꿈꾸며 함께 연주하고 있음을...



서로의 음을 맞추어 본다. 일어나서 인사를 청하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기타를 잡는다. 각자의 곡을 각각 연주하고 있는 듯 하지만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면 같은 음을 꿈꾸며 혼자자 아닌 ‘함께’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토) 대학원 소강당에서는 고전기타 동아리 취현 세 번째 졸업생 연주회가 열렸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졸업생들이 필요없는이념 어김없이 학교에 모여서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기타를 치고, 그것을 무

대에 울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졸업생들은 큰 행복이다”라고 황규식(법학 86)씨는 전했다.

졸업생 연주회가 생긴 근면 취현은 보다 정밀화된 동문회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졸업을 전후한 선배들이 모여 서로를 추억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행사를 가져보는 것이 어렵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은은한 조영 아래 진지한 표정으로 기타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울음 손가락으로 뜯고 뿜기며 내는 소리는 마치 흑백영화화 보는게 아닌, 듣는 것 같은 잔잔함과 가슴통증을 준다. 어렸을 적 엄마의 보석함을 열었을 때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새 대의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기 위한 비발디의 협주곡(Concerto Para 3 Guitars)을 그 시작으로 감미로운 곡들이 트리오, 솔로, 합주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마지막 합주곡 ‘Brandenburg Concerto No. 3’은 어느 광고음악에서도 쓰였던 익숙한 음악이기도 하다.

무대에 막이 올라오기 전에 기타를 짊어 메고 공연장을 나가는 그들의 모습,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스쳐간다.

윤승은 기자 happyend21@hotmail.net

### 고전기타반 취현의 선배대 대화 엿보기



## “내 선배이고, 내 후배이다라고 믿는 것, 나와 그가 끈이 있다고 믿는 것”

선배 유승현(행정학 92졸)



후배 홍현선(상경계열 01)

학교 울리리를 넘어서 사회에 나간 지 이제 일년 반, 일이 많이 짜증이 날 때, 일에 끌려다니는 생각이 들 때, 유승현(행정학 92)은 좋아하는 기타를 치거나 그 기타를 함께 쳐 온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풀려고 말한다.

“집은 멀지만 자주 오게 된다”는 그는 졸업하고도 학교에 와서 편안하게 문 열고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한때 오더라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있었다는 것 든든함”이라 10년이나 지나니는 이학번 새내기들하고도 ‘기타 취현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친해졌다.

그는 여름방학 때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뮤직캠프가 대학 시절 가장 좋은 추억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매일 기타만 치는 그 시간을, 캠프 마지막 날 연습할 내용으로 작은 연주회를 하는데, 그 때 많은 선배들이 웃어와 격려했다. “1학년 시절 뮤직캠프 마지막 날, 10년 이상의 선배들까지 멀리서 찾아왔다. 그 때 배로 이랑거구나”하며 머리를 스쳤던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지금도 이어지는 돈독한 선배대 관계, “10회반 새내기들에게는 어느새 내가 1학년 때 감동 받은 그 10년 이상의 선배가 되어버렸다”며 선배대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전한다. “내 선배이고, 내 후배이다라고 믿는 것, 나와 그가 끈이 있다고 믿는 것”이 선배대 관계에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착해요, 우리후배들” 요즘 후배들이 어머니는 질문을 하자 대뜸 그가 한 말이다.

그는 그런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끝까지 열심히 해보면 이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이 공부인데, 사람이든, 동물이든...”이라며 앞으로 취현인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저 또한 열심히 동아리에서 생활하던 선배들처럼 대학생활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요”라고 말하는 홍현선(상경계열 01)향.

그는 기타가 혼자 치며 즐길 수 있는 악기일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전기타 동아리 취현에서 함께 기타를 배우고 있는 지금은 “조용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 기타가 더 좋아지게 됐다”고 말한다.

“조금은 조용한 선배들이지만 기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다”고 말하는 그는 선배들 지평을 시작한다. 후배들이 기타치는 것 하나하나를 세심히 지켜주는 선배의 모습에 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았다고 한다.

말보다도 서로의 기타 선율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들은 얼마 전 다녀 온 연타에서도 반세도록 기타를 찾다고 한다. “술마시고 노는것이 아니라 밤새 함께 기타를 치면서 서로 감동 주고 감동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동아리 이름이 ‘기타를로 취현’이라는 의미인 취현이라고.

얼마전부터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홍현은 요즘 매일 저녁 동아리방에서 기타를 친다. “혼자 동아리 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으면 선배를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신뢰와 정이 쌓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선배대 관계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누군가가 나를 의지 할 수 있게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처음엔 단지 기타가 좋아서 기타를 배우려 들어왔지만 이제 나의 동아리 생활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속엔 기타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그는 선배들과 함께 진정한 음악적,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바람을 밝혔다.

# 서라벌의 밤

## 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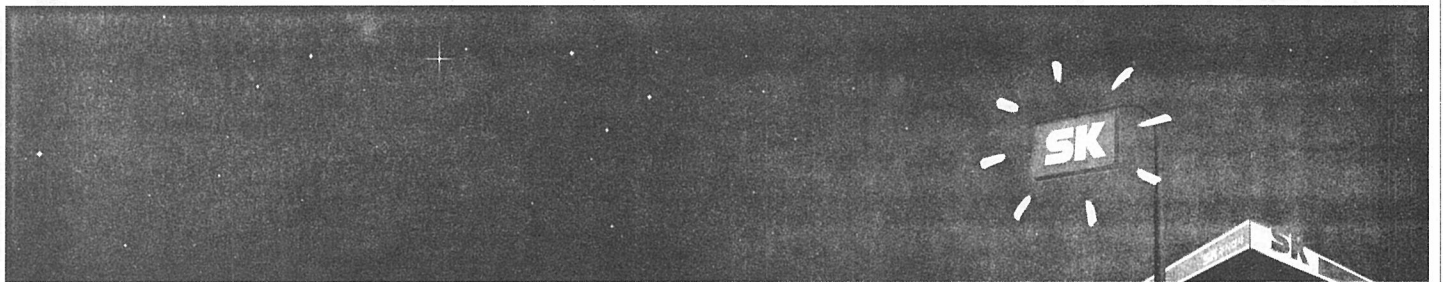
### 해설이 있는 바로크 음악회

1999년 벨기에 브루세르 고악기 앙상블로 서울로 부른 1위를 차지한 일본 출신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대키시 기리야마, 1993년 같은 앙상블 부문에서 1위에 입상한 첼리스트 노르즈이 모로오, 한국 첼리스트 오주희가 함께하는 무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제2번 리드조 BWV 1004, 비올라 다 감브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다 라조조 BWV 1026 등을 들려 준다. 한편 작곡가 김재주 교수(추계예대)의 해설을 곁들이 진행한다.

때: 16(토) 늦은 8시  
 곳: 금호아트홀  
 문의: 02)6303-1919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OK!SK



## 이곳은 고객행복주식회사입니다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SK주식회사입니다.

전국 3,700여 개의 SK주유소도, 다양한 고객서비스 프로그램도

모두 SK주식회사의 고객행복 만들거입니다.

고객행복주식회사

**SK**주식회사

에너지·화학·생활화학·인프라

SK ZIC OK NeRich

보도·앨빈 토플러 초청 '지식기반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강연회

# 지식기반 신경경제체제로의 전환,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세계적 차원의 변화까지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이어 한국이 현재 담겨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우선 현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는 "한국 현 교육은 '제2의 플레밍'인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며 "형식적 있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수출지향 경제발전전략의 수정과 내수시장의 육성을 주장했다. 또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급속도로 추격하고 있다"며 "정보산업상품 수출 등 전략적 근부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수시장에 대해서 그는 "내수시장을 키워 지닌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변동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농경이나 산업시대의와 달리 신경경제체제로 우리가 때를 만난 검증된 모델이 없으며,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 재구성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변화를 저해하는 모든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토플러 박사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현재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말을 통해 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 '말'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며 '제 3의 물결'의 저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는 "후대용 통신기기나 컴퓨터 등의 보급을 볼 때 한국은 이미 정보화 강국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용설비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생산적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하며 "장차 중요한 것은 기술의 비합리화 사용"이라는 개념적 명제를 제시했다. 지난 8일(금)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한 제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에 초청 받은 토플러 박사는 삼성중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지식기반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Emerging Third Wave in Korea)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 토플러 박사가 진단한 한국의 현재 발전상황이다. 이런 상황 판단에 따라 그가 제시한 해답은 "IT(정보기술)와 BT(생명공학)의 융합." 그는 "IT의 디지털혁명의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까지는 IT가 BT의 발전을 촉진하고 개발을 주도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반대로 BT가 IT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단언했다.

뒤이어 유전공학이나 DNA 컴퓨터 등을 BT와 IT 기술의 융합 사례로 제시하며 이들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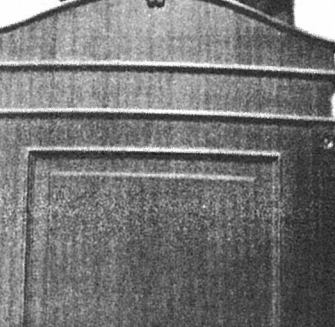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80종 이상의 유전자공학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 △영국에서 섬유유리 인장강도를 400배나 강화한 염소를 배양하는 것 △일본이 천연기스를 조작해서 에틸렌을 생성해 내는 것 등을 IT와 BT의 기술융합에 따른 기술적 진보라고 토플러 박사는 소개했다.

"한국이 이러한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야 향후 지식기반의 신경경제체제로 주도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토플러 박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 현 시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미래는 전적으로 지식기반경제로 어떻게 전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토플러 박사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고민의 범위도 한국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러한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야 향후 지식기반의 신경경제체제로 주도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토플러 박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 현 시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미래는 전적으로 지식기반경제로 어떻게 전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토플러 박사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고민의 범위도 한국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앨빈 토플러 초청 강연회 모습



## 12일, 공항에 송교수 환영 갈 것 고대 총학 통일 토론회에 송두율교수 귀국추진

고대 총학총회 오는 13일 고대 4·18 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통일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한다. (SK)

이들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을 통일대토론회에 관한 발제계획과 조직적인 조의를 받고 있다. 송두율 교수는 "이런 의욕들이 기우여기를 버려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행사 불발방지에 대해 "행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총학생회에 직접 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우석 총학생회장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적은 없지만 학생회 직원을 통해 여러 번 얘기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 자진해서 행사를 불허해 해도 대해서 총학생회에 따고 들어온다면 정하게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학총회는 지난 7일(목)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우석'이 학교측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통일대토론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학원사정 철회', '송두율 교수의 조건 없는 귀국 보장'을 촉구했다.

또, 오후 2시경 고대 새봄 학생회장 김민재(국어교과과 97)를 포함 서울지역 대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고대 총학총회는 지난 5월말 '통일대토론회'행사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독일 필스터 대학)교수를 초청하기 위해 송교수의 조건 없는 귀국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학총회에 의하면 "현재 입학이 금지된 송두율 교수의 귀국에 관한 건의서와 공개질의서를 국정원과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공식적으로는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이마 허가를 한다고 해도 지난 늦봄 통일상 비상시 때처럼 준비사항서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송교수의 조건 없는 귀국을 원하고, 송교수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한편, 총학총회는 정보기반이 학교측에 행사 불허 압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 사복경찰과 프락치를 동원해 학원사정을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학생들은 "지난 6월 5일 신원외 방문명령과 수상한 행동을 하는 3~4명의 사람을 직접 추궁한 결과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확인결과 존재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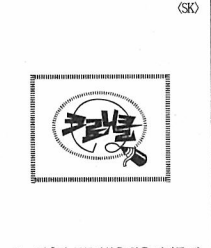
- ▶ 주제토론  
본문에서 권혁과 통일정책의 이복사의 인식에 관한 의문과 과제  
송두율 (독일 필스터 대학)  
학원사 (민주노동당 지부위원장)
- ▶ 1. 이복사의 자주성강화의 의미와 그 배경 (김영주 교수)  
고대대 (지정학 집행위원장), 민주유 (법학전문대학원)
- ▶ 2. 이복사의 자주성강화의 의미와 그 배경 (송두율)  
(수학자 이복주)
- ▶ 3. 주제토론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국책연구 (박승민 통일연구원)
- ▶ 6월 18일 6시 고대대 2주년기념관

## 진정한 언론자유

○... 지난 9일 조선일보 방송사 사장인 방시장은 모교인 미국 오하이오대학에서 학문, 전문분야, 사회봉사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80년 오하이오대학 개교 이래 한국인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트 글리든 오하이오대학 총장은 "방시장은 신문 발행인으로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인 언론자유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고 말했다는 데..."

국민들 잠시 무시하고 마음대로 신문론을 발행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자유라 생각하는 로버트 글리든 총장, 혹시 학생들의 권 무시하고 방송사 사장에 상을 준 것은 아닐까?



○... 현충일 국군병원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 목적은 아직도 병상에 계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피려 '교생이 많다'며 나아질 것이라고 위로 받았다는 시에, 이 장면엔 장제들은 플로니플라 울 "재래야 언제 국민들을 위로해 줄까" (훈)

○...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리처드 라이더 교수가 '대학생활 생각해 보는 법'이라는 책을 냈다. 그의 충고 및 지침을 보면 △소스케에 주연하다 △과제물을 많이 내주는 과목을 선택하라 △전공과 무관한 강의도 들어라 등인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공은 짜깁기에 주연하다 △과제물 많이 내주는 과목을 짜깁기 △전공과 무관한 강의까지 들을 시에, 이것이든 등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훈)

외대는 달라

# 비둘기철판

**왕 산 골**

출판인지 대금 납부 안내  
기간내 미납자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 제일은행 667-20-138075  
예금주 : 졸업준비위원회  
기간 : 6월 13일(수)까지  
추가신청 희망자는 학생회관 325호에서 접수합니다.  
(제 15대 졸업준비위원회)

**0**출판입니다  
2001학년도 제 2학기 모험학사(기숙사)생 모집 안내  
원서교부 : 모험학사 운영과  
원서접수 기간 : 6월 22일(금) 까지  
원서 접수처 : 모험학사 운영과 (기숙사 내)  
제출서류 : 입사원서 1부(소정양식), 인터넷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부, 성적증명서 1부(학년은 제외), 중방사신 3장, 4학년 학생은 학장 추천서 1부  
산발기준 : 1)학업성적 2)동화기문 3)가계근로 4)신체부자유자  
(가계근로 및 신체부자유자는 증명서류 1통을 제출할 것)  
문의 : 모험학사 운영과 031.1330-4102-3  
(모험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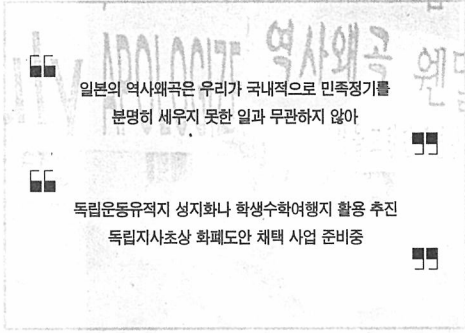
**이 문 별**

**0**출판입니다  
출판료가 있을 출판도서 모용권을 개회합니다. 학술, 교양 교재 등을 9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많이 주시고 일시 : 6월 12, 13일(수) 이틀간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장소 : 출판부 앞야탑  
(출판부)  
행정학과가 제의한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 : 6월 13일(수) 장소 : 교수서관 2층 쿠키방  
(행정학과)

타이거와 학우 여러분! 시끄러운 마비네로 공시와 선풍기 없는 강의실에서 2001년 1학기 정발 교강의를 같이 수업 받으면서 만났던 여러 선후배들 좋은 만남들이었구요. 물론 말 안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열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 왕산 골지사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331)1330-4112

민노보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 김희선 의원

# “민족정기 수호의지 보여줄 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올해 초 국내적으로는 친일행위자 김창홍의 국립묘지 안장이 여파되어 국외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사안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역사왜곡과 민족정기훼손의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는 취조도 모람이 재언되었다.  
 4월 2일 첫 모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민족정기를 분명하게 세우지 못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희망을 찾는 일이라는 인식하에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집행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 반민족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지위와 재산이 보호된 반면, 애국지사 및 그들의 후손들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민족정신이 계승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간접적으로는 사회정기가 무너져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상범(동국대 교수)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반민족행위는 중대범죄로 친일과 재산은 정물’이라고 제언한 ‘보통대상이 아니다’라며 ‘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및 수해제헌의 민족정통성 수호 특별조치법’ 제정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과거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범죄인 보호를 받아있고 일부 친일인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상훈을 받는 등 수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시정요구가 있으므로 한 조항의 방안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은 큰 사회적 변화를 몰고 오도록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과급과나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합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는 주변국이 일제침략역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정정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등이 나치부역 반민족행위 청산에 나서자 이에 독일이 영향을 받아 자국내 나치잔재 청산에 적극 나선 사례가 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로 NMD체제 구축에 대한 전담은 과거 고종의 이완파전에 비유하는 ‘미관 파견’과도 같다’며 ‘자주의 민족자존을 역설한다’고 말했다. ‘민족 문제’를 강조한다면 ‘나치’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염려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정기 수호는 무조건 외국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민족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휩쓸리면서 결국 주권을 상실했던 역사의 교훈을 삼켜 민족의 정신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세계화에 나서자는 것이다.  
 MD에 대한 반대는 세계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대결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잠재보수에 따라 나온 결론이다. 두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느 한 편에 서는 것 보다 중립외교를 펴는 것이 민족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독립애국지사 발굴, 일제잔재 청산 및 현대사 재조명을 통해 민족정기를 회복 계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애국지사의 정신과 활동상을 재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유지자 성지화나 학생수학여행지 활용 추진, 독립지사초상 화폐도안 채택 등 사업을 준비중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23명인데 향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모임을 국회의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해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수호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 4천의 교과서 채택시기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관련 민간단체가 심사대체제도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는 문화개방과 연계하고 민간차원에서 일선학교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여 검정 통과를 막아야 했다.  
 향후 대책으로 해외의 대한민국 관련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정부차원의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족문제와 관련한 연구와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무언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같은 철학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내부적으로 나치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을 전개했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군국주의 색채가 사회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경제위기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부적 문제를 외적 평창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극우세력이 득세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신군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

협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는 주변국이 일제침략역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정정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등이 나치부역 반민족행위 청산에 나서자 이에 독일이 영향을 받아 자국내 나치잔재 청산에 적극 나선 사례가 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로 NMD체제 구축에 대한 전담은 과거 고종의 이완파전에 비유하는 ‘미관 파견’과도 같다’며 ‘자주의 민족자존을 역설한다’고 말했다. ‘민족 문제’를 강조한다면 ‘나치’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염려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정기 수호는 무조건 외국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민족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휩쓸리면서 결국 주권을 상실했던 역사의 교훈을 삼켜 민족의 정신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세계화에 나서자는 것이다.  
 MD에 대한 반대는 세계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대결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잠재보수에 따라 나온 결론이다. 두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느 한 편에 서는 것 보다 중립외교를 펴는 것이 민족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독립애국지사 발굴, 일제잔재 청산 및 현대사 재조명을 통해 민족정기를 회복 계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애국지사의 정신과 활동상을 재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유지자 성지화나 학생수학여행지 활용 추진, 독립지사초상 화폐도안 채택 등 사업을 준비중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23명인데 향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모임을 국회의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해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수호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한국의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위법적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이제 따라 그 동안 군국주의 색채가 사회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경제위기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부적 문제를 외적 평창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극우세력이 득세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신군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

협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는 주변국이 일제침략역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정정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등이 나치부역 반민족행위 청산에 나서자 이에 독일이 영향을 받아 자국내 나치잔재 청산에 적극 나선 사례가 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로 NMD체제 구축에 대한 전담은 과거 고종의 이완파전에 비유하는 ‘미관 파견’과도 같다’며 ‘자주의 민족자존을 역설한다’고 말했다. ‘민족 문제’를 강조한다면 ‘나치’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염려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정기 수호는 무조건 외국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민족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휩쓸리면서 결국 주권을 상실했던 역사의 교훈을 삼켜 민족의 정신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세계화에 나서자는 것이다.  
 MD에 대한 반대는 세계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대결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잠재보수에 따라 나온 결론이다. 두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느 한 편에 서는 것 보다 중립외교를 펴는 것이 민족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독립애국지사 발굴, 일제잔재 청산 및 현대사 재조명을 통해 민족정기를 회복 계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애국지사의 정신과 활동상을 재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유지자 성지화나 학생수학여행지 활용 추진, 독립지사초상 화폐도안 채택 등 사업을 준비중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23명인데 향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모임을 국회의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해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수호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보도- ‘세번째 테제’ 주최 ‘구조조정, 진정한 대인인가’ 토론회 열어

# 현 구조조정, 위기만 심화된다

지난 8일(금) ‘구조조정, 진정한 대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학교 학회정 책연구모임 ‘세번째 테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회 간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동아리, 학회, 학생회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불안정 노동 △공기업 민영화 △신생과대학 교육발전 △남북관계 등의 주제로 기획된 토론회 중 첫 번째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김대중 집권기 ‘구조조정’을 추진한지 이제 4년째 접어들었고 99년 말 한때는 위기를 거의 극복해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현 사회에서는 99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이 점이 바로 이번 토론회의 배경에 녹아있는 기본

관과 기업이 정리되는 동안 무려 100조원이 돈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었던 오히려 정부 재정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학회 공동된 분석이다. 진정한 ‘구조조정을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도록 변경시켜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토론회는 양원익(사회·정치외교 88)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명선(사회·정치외교 90)이 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은 ‘신자유주의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이 구조조정이냐’라며 ‘구조조정은 새로운 축적주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의 영역까지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유연화를 기치로 내건 노동구조조정을 통한 임금과 노동의 불안정화 등을 근거로 구조조정의 폐해가 심각함을 역설

했다. 진정한 위기에 1970년대 이후부터의 경제동향을 분석하며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70년대 기존의 이윤 축적방식이 한계에 부딪치자 자본은 금융부문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브레튼우즈 협약의 해체, 신

관과 기업이 정리되는 동안 무려 100조원이 돈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었던 오히려 정부 재정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학회 공동된 분석이다. 진정한 ‘구조조정을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도록 변경시켜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시간에는 각 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신자유주의라는 협지 않은 주제를 접근해야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한 학회 간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인본비평 동아리 노태우의 이희준(사회·정치외교 99)은 “세태기들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이 지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태기’가 부분적이고 축적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세태기’와 뒷물기가 완강한 분리되어 등 일선에서 겪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회 준비에 참여했던 정명선(사회·신문방송 99)은 “학원사들에게 이번 토론회가 정세세미나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가자들이 일부 과나 동아리에 국한되어 있어 그 밖의 많은 학회 활동가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jo.net

토론회는 양원익(사회·정치외교 88)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명선(사회·정치외교 90)이 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은 ‘신자유주의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이 구조조정이냐’라며 ‘구조조정은 새로운 축적주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의 영역까지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유연화를 기치로 내건 노동구조조정을 통한 임금과 노동의 불안정화 등을 근거로 구조조정의 폐해가 심각함을 역설

## 사위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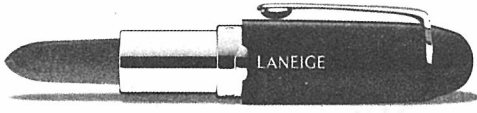
### 제1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열려

‘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제1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지난 8일(토) 열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이날 4시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선법없는 열사 명예회복!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기치로 추모제를 열고, 3백 여명의 유가족과 시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사들에 대한 넋을 기렸다. 전국연합 오프닝 삼일장은 이날 대외사를 통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사인조사 밝혀지지 않은 죽음의 땅에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일 독립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년이나 되도록 1차 신청 8천 400건 중 12%를 승인하는데 그쳤다. 의문사 진상규명 역시 지지부진하며 조사 과정이 비만에 부추겨져 조사 조사가 되고 있는지 우려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당국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 그·림·타·레 <16>

정현도 기자





## 당당한 여성의 생각, 들려주세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치세요.  
태평양은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낼 때,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대한 당신의 생각, 지금 들려주세요.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 2001년 9월 12일 - 10월 31일

**3. 응모자격 :**  
여성의 사회적 성공  
가. 여성의 사회적 성공 전략  
나. 또 다른 의미의 여성의 성공  
다. 성공한 국내외 여성들의 사례연구  
라. 역사와 전통속의 성공여성 발달 등  
마. 주제에 벗어지지 않는 타 주제 가능

**4. 응모방법 :**  
가. 편장 : A4 용지 20매 이내 분량 (단, 표지 1매는 제외)  
나. 제출서류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가 11-1) (02-760-0000)  
다.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연구실 22에 한함

**5. 시 상 :**  
가.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나.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다. 장려상 10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2001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7. 제 출 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인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2층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번호는 반드시 소인받아야 함)

**8. 기타사항 :**  
가.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나. 수상자는 당시 입상시 무대  
다. 수상자 전원에게 2주간 태평양 재능봉사 견학  
라. 저출생 인구는 다른 경쟁자에게 발표되지 않음  
마. 응모된 논문은 원본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처 :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사무국 (02-749-2380/02-709-5631)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위용성, 주제해명력, 형식

컬처렛(Culturette)이란?  
여성취향의 문화를 뜻하는 말로,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일하는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제7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 「여대생논문」 공모전

**주제 : 여성의 사회적 성공**



